

“7년차 트와이스 성장기와 꼭 닮은 앨범”

“휴양지 온듯 시원한 여름노래 사랑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세요 타이틀곡 외 전곡 멤버들 작사 전세계 팬 감동시키는 게 목표”



“우리가 서머 킴” 걸그룹 트와이스가 최근 발표한 미니음반 ‘테이스트 오브 러브’로 31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여름은 역시 트와이스의 계절이다. 케이팝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서머 송으로 이번에도 전 세계 차트를 “시원하게” 휩쓸었다. 최근 발표한 미니음반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그리스,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해외 31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며 이듬해를 했다. 이번 앨범은 8개월 만에 내놓는 신보이자 2018년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2020년 ‘모어 앤드 모어’를 잇는 ‘트와이스표 서머 송’으로 기대감을 키웠다. 선 주문량만도 53만장을 넘어섰다. 타이틀곡 ‘알코올 프리’(Alcohol-Free)로는 국내 각종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 “사랑에 대한 해답과 성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여름 노래이면서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트와이스의 설명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들은 “트와이스의 여름은 언제나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트와이스는 “여름”이라는 계절 콘셉트만 빼고는 이전과는 모든 점에 차별점을 두었다. 특히 올해 데뷔 7년차를 맞은 만큼 “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 그동안 선보인 앨범과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2018년 다섯 번째 미니음반 ‘왓 이즈 러브?’에는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고 설레는 모습을 담았다면, 이번 앨범으로는 사랑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트와이스가 성장해온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데뷔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 “노과 귀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실제로 음악에서도 한 뼛 성장한 것을 느끼게 해준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한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전 곡을 멤버들이 직접 작사했다.

“처음엔 다들 한 곡이라도 작사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곡의 주제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영감을 받는 편이에요. 평소 드라마 마블 많이 보는 멤버는 드라마 장면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받기도 하고요. 지효는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작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앨범을 낼 때마다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며 꾸준한 작업해온 덕분에 자신감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록곡 작사 크레딧을 멤버들이 이름으로 채울 수 있어서 무척 뿌듯해요.”

트와이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글로벌 보폭을 넓힌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와 손잡고 ‘인핸드 앨범’(수록곡과 곡에 대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앨범)을 선보인 데 이어 신곡 무대도 최근 미국 유명 토크쇼 NBC ‘엘렌 디제너러스 쇼’에서 최초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 걸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역대뷰 뮤직비디오(총 17편)를 보유하고 있어요. 트와이스라는 그룹명의 의미가 ‘눈(퍼포먼스)으로 한 번, 귀(음악)으로 한 번 더 감동을 준다’인데, 이쯤처럼 전 세계 팬들을 모두 감동시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들 대약진

‘분노의 질주’·‘애프터 양’ 출연 저스틴 민, 칸 레드카펫 기대 ‘미나리’ 이후 靑 배우에 관심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 등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들이 새롭게 주목받는 가운데 그 바탕을 잇는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최근 흥행작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의 성장과 ‘애프터 양’으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된 저스틴 민 등이다.

성장은 13일 현재 누적 215만6000여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으로 올해 국

내 개봉 최고 흥행작이 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빈 디젤, 샤를리즈 테론 등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영화를 이끌었다.

세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2006년 ‘패스트&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로 무대를 나타냈다. 이후 2009년 ‘더 오리지널’과 2011년 ‘엔리미티드’에 조연으로 출연하고 2013년 ‘더 맥시멈’부터 주연의 자리에 올라서 2015년 ‘더 세븐’ 등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크게 활약했다. 그에 앞서 2000년 그룹 g.o.d의 3집 ‘거짓말’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사실이



성강 저스틴 민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스틴 민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계 배우로 알려져 있다. 국내 관객에게는 2019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엠브렐러 아카데미’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7월 막을 여는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다. 출연작 ‘애프터 양’이 이번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할리우드 스타 콜린 퍼렐 등과 호흡을 맞췄다. 2012년 영화 ‘마이 파더’로 데뷔한 뒤 현지에서 일하며 지난해 다니엘 헤니가 소속된 에코글로벌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어 한국 활동에 대한 기대도 키운다.

이처럼 한국계 배우들의 활약은 2018년 아시안 배우들로만 출연진을 꾸려 크게 흥행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이후 할리우드의 인종 및 문화다양성 확대 속에서 더욱 돋보인다. 다양한 장르와 이야기 안에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배우들의 활약이 뚜렷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안방의 반전남’ 이현욱·박은석

이현욱 tvN ‘마인’서 악역 화제 박은석 ‘펜트...’ 로건리 형 변신

주말 안방극장에 ‘반전 남’이 떴다. tvN 토일드라마 ‘마인’의 이현욱과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의 박은석이 예측불허의 캐릭터로 이야기를 이끌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외부부터 말투까지 변신을 거듭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현욱은 최근 9%대(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돌파한 ‘마인’에서 재벌 2세 한

지용 역을 맡고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초반에 선보였던 다정한 모습 대신 폭력성과 비열함을 드러내면서 매 회 반전을 선사한다. 또 극중 아내 이보영과 형수 김서형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강렬하게 시선을 끈 덕분에 얼굴과 이목을 알린 계기가 됐다. 화제성 분석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9일 발표한 6월1주차(5월31일~6월6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 7위 이보영에 이어 10위에 올랐다.

드라마 홍보를 위해 SNS에 올린 재치



이현욱 박은석

남치는 게시물들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최근 “(악역을 맡은 이후)어머니의 연락이 현재저 줄어들었다”며 “엄마, 나 버리지 마”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극중 캐릭터와는 사뭇 다른 게시물들이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스타 탄생’ 예고한 고민시

‘오월의 청춘’ 호평 속 종영 탄탄한 연기·스타성도 겸비 영화 ‘밀수’서 새로운 도전



고민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드라마의 주연으로 잇따라 활약한 뒤 이제 스크린 주역까지 노리고 있다. 최근 종영한 KBS 2TV ‘오월의 청춘’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고민시가 스타급 감독과 배우들로 빼곡한 영화에 자신의 자리를 새겨 넣었다.

고민시는 ‘오월의 청춘’에서 1980년 5월 광주 비극을 표현하며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으로 존 재감을 서서히 드러낸 뒤였다. 그는 ‘오월의 청춘’에서 발랄하면서도 처연한 모습으로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들 바탕 삼아 이제 스크린으로 향한다. 최근 촬영을 시작한 ‘밀수’가 새로운 무대이다. ‘베테랑’의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에서 김혜수·염정아·조인성·박정민 등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 1970년대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밀수 범죄에 휘말린 이야기 속에서 ‘마녀’ ‘봉오동전투’ 등에서 별다른 눈길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전망이다. 전지현과 함께 tvN 드라마 ‘지리산’의 크레딧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맹활약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2016년 웹드라마 ‘72초 드라마 시즌3’으로 데뷔한 뒤 5년 만의 성과이다. 이후 적지 않은 드라마 등 ‘실전’의 경험을 살리며 차근차근 쌓아온 경력의 힘이기도 하다. 탄탄한 연기력에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얼굴로 스타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완만하지만 결코 쉽게 꺾이지 않을 성장세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연구가 오늘 발인



故 임지호

‘방랑식객’으로 불린 고 임지호 요리연구가 영면에 든다. 발인식은 14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철남원 김포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장지는 인천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이다. 12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임지호는 2013년 SBS ‘방랑식객’에 출연하며 ‘잘 먹고 잘사는 법’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요리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을 내놨다. 4월 ‘더 먹고 가’에 함께 출연한 방송인 강호동, 황제성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젝키’멤버 장수원, 일반인 여친과 교제중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 장수원이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다. 장수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젝스키스로 데뷔한지 25년째인 제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분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추후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원은 1997년 젝스키스로 데뷔해 현재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리아 학폭’ 주장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그룹 있지의 멤버 리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가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2월 학창시절 리아가 왕따 등 학폭을 가했다고 주장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겪은 일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